

도자기·자수공예·수제화...전통의 맥 잇는다

광주 '동구 명장·명인·장인협회' 공식 출범

정찬이 미용명장 등 27명 참여

서점 '소년의 서', 오래된 가게·장인 발굴 기록

광주 구도심인 동구에는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쌓인 오래된 공간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수십년 세월 동안 가게를 지켜온 토박이 장인들은 양복을 짓고, 수를 놓고, 구두를 만들고, 사진을 찍으며 삶을 이어왔다. 단순히 생계를 넘어 각자의 '작은 역사'를 만들어간 그들의 가게는 지역민들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여기에 서예·국악기 제작 등 문화·예술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명인·명장들의 활동상도 눈에 띈다.

대한민국 명장으로는 김옥수(무안요도 자기), 송현경(자수공예), 김진숙(한울미용실), 김인순(보성주단) 등이, 광주시 명장으로는 정인순(아리랑 주단), 고경주(빛고을 귀금속) 등이 참여했다.

'오래된 가게' 들을 운영해온 지역 장인들도 눈에 띈다. 50년 넘게수제화를 만들어온 노들담 제화 임종찬, 광주 사진관의 터줏대감 쌍광사진관 정재식, 58년간 재봉틀 관련 일을 해온 한일 미싱 장춘원, 손뜨개질로 이름을 알린 황금실백화점 강현숙, 김치 명인 전복식당 김호욱 등이다.

협회는 앞으로 전통 공예의 활성화에 힘쓰고 동구만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동구는 지역 특성을 살린 정책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협회 발족 역시 동구청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함께 지역 명인들을 초청, 기획 전시를 여는 등 장인들을 위한 기획을 현실화 시키면서 이뤄졌다.

동구는 또 올 초 30년 이상 된 오래된 가



송현경 자수공예 명장.



고경주 귀금속 명장.

게를 지원하는 '동구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최근에는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과 동구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 용역을 진행, '오래된 가게들을 활용한 관광코스 개발' 등 제안된 안에 대해 검토중이다.

한편 동구 광주극장 뒷골목에 자리한 동네 서점 '소년의 서' (충장로 5가 62-101)는 '충장로 디스커버리-지역 아카이빙 프

젝트'를 통해 지역의 오래된 가게와 장인들의 이야기를 발굴·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1983년부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자수 김재경 대표와 노들담 제화 임종찬 대표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오는 28일 오후 7시에는 서점에서 1972년부터 48년간 양복을 만들어온 양복명장 전병원 양복점 대표를 초청,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주한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K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며칠 후 광주를 방문하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2005년 10월-2008년 9월 재임)의 동선을 짜는 데 필요하며 궁중 '예술의 거리'에 대한 소개를 부탁했다. 예술의 거리에서 꼭 봐야 할 명소들과 사람들이 많아 피해야 할 곳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2박3일간의 바쁜 일정에 굳이 예술의 거리를 고집하는 이유를 묻자 예방 광주의 '뿌리'를 보고 싶다는 대사의 바람 때문이라고 했다.

시간,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다. 늘 사람들로 넘쳐나는 '서울의 인사동'을 기대한 미 대사의 환상을 깨뜨릴지도

독한 눈으로 예술의 거리를 기웃거렸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들을 반겨주는 문화공간들이 적었다. 대신 거리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과 굳게 잠긴 가게들로 적막감이 흘렀다. 그나마 문을 연 곳은 1-2개 골동품 가게와 표구상 뿐이었다. '기는 날이 장날'이라고 광복절 휴일로 셔터를 내린 곳이 많았던 탓이다. 야이나 다름없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들의 머리위로 나무끼는 수많은 수형선수권대회 기념 전시회와 문화이벤트 현수막이 공허해 보였다.

지난 18일 2019 광주 세계마스터즈 수형선수권 대회가 14일간의 열전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광주는

문단은(?) 예술의 거리

문단은 격정에서였다. '예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인적이 드문 데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일찍 문단은 상가들이 많아 '불꺼진 거리'로 변하기 때문이다. 수소문 끝에 당시 유일하게 전시회를 열고 있던 N갤러리와 한 서예가의 작업실을 추천했다. 이후 버시바우 대사는 짧은 일정에도 짧은 내 예술의 거리의 '추천코스'를 둘러 본 후 서울로 떠났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다. 과연 버시바우 대사가 쇠락한 예술의 거리를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다.

세게 메가 5대 스포츠이벤트로 불리는 세계수형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 대회에 맞춰 다양한 문화행사를 내걸고 대화특수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다행스럽게도 여름휴가시즌과 두 수형대회 가 동시에 열린 덕분에 백화점과 숙박 시설, 관광명소는 적지 않은 경제적 효과를 누렸다.

다행 수소문 끝에 당시 유일하게 전시회를 열고 있던 N갤러리와 한 서예가의 작업실을 추천했다. 이후 버시바우 대사는 짧은 일정에도 짧은 내 예술의 거리의 '추천코스'를 둘러 본 후 서울로 떠났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다. 과연 버시바우 대사가 쇠락한 예술의 거리를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다.

하지만 일부 미술관과 공연장, 예술의 거리 등 문화현장은 '손발'이 맞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저녁시간대의 상설 콘텐츠가 부족해 수형대회 참가자들이 미술관이나 공연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대회 기간이라도 밤 시간대의 관람객을 겨냥해 개관시간을 연장한 미술관이나 갤러리는 거의 없었다. 휴일이라는 이유로 대회기간 셔터를 내린 예술의 거리 처럼. 그날, 허탕을 치고 속으로 돌아갈 뻔한 뒤 모음을 떠올리던 지금도 마음이 무겁다. 문화수도라는 화려한 치장속에 감춰진 민낯을 들킨 것 같아서.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영화 '려행'



문화집단 열혈지구의 장소 특색적 공연이 열리는 공유공간 뽕뽕브릿지.

24일 광주극장서 '려행' 임흥순 감독 '관객과 대화'

영화 '려행'의 연출자 임흥순(사진) 감독을 만나는 관객과의 대화(GV) 시간이 오는 24일 오후 5시 광주극장 영화 상영 후 영화의집에서 열린다.



한에서의 삶, 국경을 넘기까지의 망설임과 두려움, 이주 과정, 우리나라에서의 힘겨운 일상 등이 담겼다.

이날 행사는 독립기획자 임인자 '소년의 서' 대표가 진행자로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참여한 관객 전원에게 '려행 스페셜 짐팩'을 나눠주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관람료 성인 8000원, 중고생 70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날 행사는 독립기획자 임인자 '소년의 서' 대표가 진행자로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참여한 관객 전원에게 '려행 스페셜 짐팩'을 나눠주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관람료 성인 8000원, 중고생 7000원.

열혈지구, 뽕뽕브릿지서 23일 연극 '귀신전' 공연

문화집단 열혈지구가 오는 23일 오후 7시 발산마을 공유공간 뽕뽕브릿지에서 '귀신전(歸神傳) - 돌아와 귀, 새로운 신'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해 장소 자체가 작품의 일부가 되는 '장소 특색적 연극'으로 기획돼 전시공간에서 공연이 진행된다.

이날은 발산마을과 임동 방직공장을 배경으로 광주의 근대사, 여공 문화,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의 개인들의 삶 등의 이야기를 할 데 묶은 공포극을 공연한다. 이웃 혹은 나 자신일 수 있는 개인의 어두운 그림

자들, 그 불안함과 상처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극 중에는 김미경 꿈향아리 인형극단 단장의 그림자극, 인형 오브제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전경화씨가 작·연출을 맡고 김미경·김수현·전경화·박지형 배우가 출연하며, 광전초등학교 학생들(채원·임채원·성현승·송아린·이승미)이 특별출연해 생생한 연기를 선보인다.

공연은 무료 입장 후 감동받은 만큼 지불하는 '감동후불제'로 진행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대, 23일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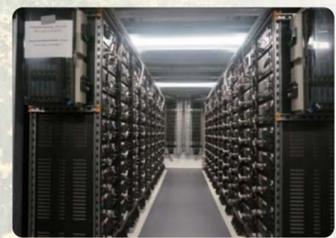
전남대 국어문화원(원장 손희하 국문학과 교수)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전남대 인문대학 3호관에서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 간 지역 국어진흥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2019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를 가진다.

이런 연수회에서는 광주지역 중앙행

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들이 참석해 광주지역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대해 논의한다. 또 정부의 국어정책과 국어책임관의 역할과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 간의 협업사례 소개 및 제안도 함께 이뤄진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경계역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제(가중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산업부 장관, A개 단행태양광·전력·전선·제약·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재정 지원
- 시군에 예산총액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추진 가능 확대에 공동 노력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영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